



## **“Youth to Business Forum 2010”에서 학생 조직인 AIESEC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EF Education First**

(하이데라바드, 인도 8월 26일 AsiaNet=연합뉴스) 굴지의 언어 교육 업체인 EF Education First와 세계 최대의 학생운영조직 중 하나인 AIESEC가 오늘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“Youth to Business Forum 2010”에서 국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.

이 두 조직은 서로 힘을 합함으로써 재능있는 경영학도가 다른 나라에서 국제 언어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, 그에 따라 경영학도가 일반 사회에서는 물론 사업계에서도 국제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할 예정이다.

멀티미디어 뉴스 보도자료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한다:

<http://multivu.prnewswire.com/mnr/prne/efeducationfirst/44197/>

오늘 열린 “Youth to Business Forum 2010”에는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600명의 청년 리더들이 참가하여, 사업 리더들과 만나 사회, 교육 시스템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경향에 대해 논의했다. 이들이 논의한 주제는 주로 청년 혁신, 노동 이동성 및 다양성 그리고 책임감있는 기업 행동 등이다.

EF International Language Centers의 Eva Kockum 사장은 “학생들이 세계 시민이자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AIESEC의 “Youth to Business Forum 2010”을 지원하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”면서 “전세계 곳곳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. 이를 통해 언어, 문화 및 지리 장벽 해체라는 우리 조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번에 파트너십이 체결됨에 따라 EF는 AIESEC 회원들에게 자사 언어 교육을 특별가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학금과 전 세계 인턴십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.

1965년 설립된 EF는 오늘날 60개가 넘는 국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, 경력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언어 교육 및 여행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. EF는 AIESEC와 함께 이와 같이 재능있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이자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.

## EF Education First 소개:

1965년 스웨덴에서 창립된 EF Education First는 언어, 문화, 그리고 지리적 장벽을 허물어간다는 비전 아래 설립된 이래, 전세계에 약 400여개의 어학연수학교에서 1500만 명의 학생에게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산업의 글로벌 리더로, 어학연수 및 온라인 영어 교육과정, 해외대학 진학준비과정, 그리고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. 처음 애플사와의 온라인 학습 솔루션 개발을 위해 고안되었던 EfektaTM는 그 후 독자 개발을 통해 EF의 어학연수 프로그램 및 온라인영어 사업부문인 잉글리시타운의 학습과정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,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영어학습 방법으로 도약하였다. EF는 현재 약 1200여개의 유수의 글로벌 고객사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, 베이징 올림픽 및 2014 브라질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공식 외국어교육서비스 지정기관이기도 하다.

EF 어학연수과정: <http://www.ef.co.kr/>, 잉글리시타운 온라인 영어 과정: <http://www.englishtown.co.kr/>

문의: 홍수진 팀장 (+82-(0)2-3452-5210/ joice.hong@ef.com)